

국제화 · 세계화의 주체, 제주인의 의식변화

고성준¹⁾

요 약

이 글은 다가오는 21C적 제주도의 생존전략 내지 발전전략을 '제주도의 국제화·세계화'에 있음을 전제하면서, '의식의 세계화' 문제를 과제로 선정한다. 이러한 과제선정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은 주로 제주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세계화 관련의식을 점검하고 있다. 먼저, 제주도의 21C적 비전을 오끼나와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위상을 설정하고 있다. ① 태평양 시대,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의 위상화, ② 도서 시대, '섬들 간 네트워크'의 중심지로서 제주의 위상화, ③ 해양 시대, '한국의 침범'으로서의 제주의 위상화 등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전들이 한갓 구상의 단계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실천력을 가질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것 중의 하나는, 이러한 비전을 실천으로 옮길 주체인 제주인들의 의지와 의식의 문제이다. 의식의 변화란 그렇게 쉽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현재적 의식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걸로 드러내 놓고 제주도민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세계화의 주체로서 제주인의 의식은 분명히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첫째, 제주의 국제화, 제주의 세계화를 이끌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1979년의 조사결과와는 상당히 주목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즉, 제주인들은 대체로 앞으로 제주도가 세계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고, 그 세계화의 주도세력도 제주도민이 되어야 한다고

1) 제주대학교 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

생각하고 있다. 둘째, 세계화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의식은 고립과 폐쇄, 배타적이고 의존적인 의식, 그리고 열등의식 등이 될 것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과거에 고립된 사회에서 제주인들이 가졌던 외지인에 대한 배타심은 상당히 약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셋째, 그러나 더 이상의 열등의식이나 의존적인 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제주인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강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눌음으로 대표되는 공동체 의식과 협동의식도 아직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참여 의식과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도, 정책결정 참여의지도 타지방에 비해 월등하게 높으며, 평등의식도 높다. 정체성이 높고 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세계로 문을 활짝 열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신감의 표현이며, 합리적이면서 협동적인 태도, 참여의식과 평등의식 등은 세계시민적 자질의 기초가 되는 의식들이다.

I. 서론

이제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되었다. 그 개념이 이론적인 개념이든 국가전략적인 개념이든²⁾, 혹은 자생적 세계화든 관리적 세계화든³⁾,

-
- 2) 정진영은 “정부가 국가전략으로 이야기하는 ‘세계화’와 서술적·이론적 개념으로서 ‘세계화’를 뚜렷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진영, 「세계화 : 개념적·이론적 분석」, 정진영편, 『세계화 시대의 국가발전전략』(세종연구소 1995), pp. 17-35
 - 3) 문정인은 세계화를 “자생적 세계화”와 “관리적 세계화”의 2차원으로 구분하여 세계화 현상과 이에 대한 적응·대응의 과정을 함께 고려하여 ‘세계화’에 대한 개념정의틀 하고 있다. 자생적 세계화란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본주의적 분업질서의 구조화”가 “국경이란 인위적 장벽을 허물고 세계를 수없이 많은 거미줄로 엮어진 상호의존적 유기체로 전환”시키는 현상을 가르킨다. 관리적 세계화란 개인, 국가, 국제사회가 자생적 세계화에 따른 제약과 기회에 대응하고 적응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가르킨다. 따라서 세계화는 “자생적 발전논리와 관리적 대응의 변증법적 상승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대한 현상”으로 정의된다. 문정인, 「세계화의 위협구조와 국가전략

분명한 것은 이들 용어들이 우리들에게 현실적인 현상으로 개념으로 다가왔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⁴⁾ 따라서 이 글은 다가오는 21C적 제주도의 생존전략 내지 발전전략을 주로 '제주도의 국제화'와 '의식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국제화·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적 국제도시를 이룩하려면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가?

첫째로, 전 국민의 문제의식의 공유를 들 수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세계화란 나라와 나라간 국경선의 의미가 없어짐을 뜻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세계가 하나의 경쟁마당, 하나의 샅터로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국경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혁명적 변화이다. 그리고 각각의 법과 제도를 가진 국가의 존재를 상식으로 여겨오던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충격적 변화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계화란 국경이 철폐되는 것은 의미함은 물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와 준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⁵⁾ 우리는 이번 수입오렌지 파동으로 그것을 여실히 겪고 있다. 각지별례의 발견으로 지금은 우리가 버티고 있지만 그것을 언제까지나 버틸수는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을 알아야 한다. 관광산업만 해도 그렇다. 이구동성으로 제주관광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 한 가지는 다른 외국관광지와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데도 있다는 것이다.⁶⁾

신중상주의의 가능성과 함께, 『계간 사상』(1995년 봄호), pp. 55-60

4) 우리의 주제가 「국제화·세계화의 주제, 제주인의 의식변화」이기에, 여기서는 '지방의 생존전략 내지 발전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엄격한 구분없이 '국제화·세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5) 이상우, 「세계화 시대 - 교육을 통한 창조적 대응」, 『교육개발』(한국교육개발원 1994. 3), p. 18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제주인들은 이러한 직접적인 충격을 받으면서도 '설마'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세계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감각, 피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제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수위로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문제의 회피나 거부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수용태세이다. 이러한 데에 우리 제주인 모두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보면 세계화가 우리에게 위협과 위협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해양시대의 도래가 우리 제주에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고, 도서의 개방과 협력 가능성을 우리는 섬관광정책 포럼의 창설로 시험한 바 있다.

둘째로, 제주도 세계화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이미 학계와 제주도 차원에서 21세기적 제주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제시된 바 있지만, 이를 좀더 보완하고 구체화하여 도민들에게 제시되어야 하고 공유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홍보와 대민교류와 참여가 있어야 한다. 오늘의 주체대로 '도민의 주체'가 되는 국제화·세계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섬관광정책포럼'에서도 일반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탓으로 '관광사진전'을 관람하는 도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지적이 있다.⁷⁾ 컨벤션 센터 공모주 모집처럼 모든 세계화 추진작업에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성공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로, 문제의식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도민의 의식변화도 매우 중요하다. 앞서 지적되었듯, 아직까지 우리 제주인들은 세계화를 추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과 수용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제주인들의 개방적 의식을

6) 허향진외, 『제주도민의 관광의식 조사연구』(제주언론 5사 공동캠페인 기획협의회·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공동세미나 최종보고서, 1997. 7), 종합토론 p. 91

7) 이지훈, 「'섬관광정책 포럼' 주민 참여 아쉬워」, 『제주일보』(1997. 8. 10)

고취하고 장기적으로 세계화에 적응·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화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와 준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제주인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국제적 문호개방의 충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그에 걸맞는 가치관과 능력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는 국제적인 시각과 세계공동체 의식, 각국의 문물에 대한 이해와 외국어 능력 등을 포함한다.⁸⁾

이밖에도 여러 가지 요건을 열거할 수 있겠지만 이상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면 세계화에 있어서 제주도민의 수용태세와 의식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자명해 진다. 어찌면 제주도 세계화 전략의 성패는 이제 우리 도민들의 의식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제주도의 21C적 비전이 '국제화·세계화'에 있음을 전제하면서, '의식의 세계화' 문제를 과제로 선정한다. 그런 다음, 현재 제주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화와 관련한 의식의 현주소를 기존조사연구들을 바탕으로 재점검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의식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토론의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II. 21C 제주의 생존전략과 세계화

그렇다면 21C적 제주도의 국제화·세계화의 비전과 전략적 과제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우선 이에 대해 안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 제주도와 비슷한 위치에서 국제도시 형성전략을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의 사례를 잠시 보기로 하자. 왜

8) 김신복, 「세계화와 교육 및 의식의 개혁」, 정진영편, 『세계화 시대의 국가 발전전략』, 앞의 책, p. 202

나하면 오키나와는 1997년을 '새 오키나와 창조'의 원년으로 삼아 동아시아 교류의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1. 오키나와의 비전과 국제도시 형성 구상

오키나와는 일본 최남단에 있는 약 161개의 섬으로 된 해양縣으로, 그 지리적 위치를 보면 북쪽으로 일본 본토와 한반도, 서쪽으로 중국대륙, 남쪽으로는 아시아 여러나라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에 주목하고 일찍부터 일본은 전국종합개발계획(1987. 6)에 오키나와를 “일본의 남서단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동남아시아를 시작으로 한 여러나라의 교류거점 형성을 도모한다”고 반영하고 그것을 중앙정부의 지원아래 縣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키나와는 올해를 '새 오키나와 창조'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⁹⁾

일본 복귀 25주년을 맞아 오키나와가 야심적으로 펼치는 '새 오키나와 창조'의 전제조건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미군기지의 전면 반환이다. 지난해 이미 후테마(普天間) 미군기지 반환이 결정되었고 오타(大田)지사는 미군기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서명을 거부하여 일본 정부는 물론 극동 방어체계에 큰 충격을 던졌다. 냉전이 끝나고 '대립에서 공존'으로 바뀐 새시대에 맞추어 오키나와 역시 군사전략의 요충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요충으로 변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군기지가 없는 오키나와의 미래를 향한 중심 프로젝트는 4년동안의 연구 검토를 거쳐 지난해 11월 지사의 결재가 난 '국제도시 형

9) 오키나와의 비전과 국제도시 형성 구상은, 오키나와 광고과, 『오키나와 투데이, '95오키나와의 개황』(1995. 11); 오타 마사히데, 『환태평양시대의 도서 지역간 관광협력과 공동발전에 관련하여』, 『섬 관광정책 포럼 창조』(제주도, 1997. 7) 등을 참조.

성 구상'이다.¹⁰⁾ 21세기를 향한 이 구상은 오키나와를 동아시아에서 사람·물자·금융·정보의 교류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것으로 '평화·공존·자립'을 기본이념으로 삼아 자유무역지대 확충, 국제정보·금융도시·국제컨벤션 유치와 관광리조트, 오키나와 교민의 네트워크 등을 계획하는 것이다.¹¹⁾ 그 위치는 후텐마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던 오키나와 섬의 중심지역으로 오키나와의 중핵거점이 된다.

이를 위해 육·해·공 교통망을 정비하는 '종합교통체제 기본계획'에 따르면 나하(那覇)항만을 허브(基軸)항으로 만들어 국제물류의 거점이 될 자유무역지역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오키나와의 관심은 동아시아 교류의 중심지가 되어 있는 싱가포르, 홍콩 및 대만 무역의 거점인 카오슝(高雄), 미해군기지에서 공업무역항으로 탈바꿈한 필리핀의 수빅만, 마얀마와 베트남의 자유무역지역 등에 미친다. 국제항공노선도 현재 서울 타이베이 홍콩의 3편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북경·상해·하노이·마닐라·괌 등으로 확장하고 초고속여객선을 도입하여 국제 쇼핑물을 만들고 그 중에도 모노레일 차공계획이 주목된다.

아태지역의 정보통신 허브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특구 구상'은 특히 주목할 만 하다. 5년 정도의 연구기간에 총사업비 4백억엔을 투입할 이 사업은 대학·현청 우체국 등을 연결하고 인터넷을 통해 미국 등 주변 국가들과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 가능한 고속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인데 NTT·KDD·NHK 등 민간대기업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국제도시, 자유무역지역 또는 정보통신시설 등의 인프라는 돈과 시간을 투입하면 되겠지만 그것을 활용할 인재·소프트웨어·기

10) 이번 섬관광정책포럼에서, 오타지사는 금년 5월 동 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구체적인 추진정책과 범위 등을 제시한 「국제도시형성 기본 계획」을 책정하고 현재 그 구체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섬관광정책 포럼창설』, 위의 책, p. 48

11) 역시 섬관광정책 포럼에서 오타지사가 「국제도시형성 구상」과 관련하여 밝힌바 있는, 다양한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기본방침은 첫째 평화교류, 둘째 기술협력, 셋째 경제·문화교류 등이다. 같은 책, p. 49

업인 등 인적자원은 하루아침에 육성할 수 없다. 인재육성을 위해 일미(日美)연합대학원대학·관광종합대학 등의 유치·설치, 해양심층수 연구소·국제평화연구소·아열대종합연구소 등 연구기관 설치를 비롯, 어학연수원도 강조된다.

국제도시 형성 구상과 관련하여 관광리조트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 유치계획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12월 26개국 6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한 '동아시아 사회보장 담당 각료회의'(복지서밋)가 열렸고 1998년 아태 경제협력회의(APEC) 에너지 담당각료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며 2000년에는 일본에서 열릴 선진 7개국 수뇌회의 유치를 꾀하는 등 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다. 관광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항공노선을 확충하고 항공요금을 인하하려는 계획도 있다. APEC 관련기관의 유치나 APEC 연구센터 설립 등의 계획도 주목된다.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縣의 해외사무소 또는 위촉주재원을 확대한다. 오키나와縣은 이미 아시아의 물류·금융·정보의 중추인 싱가포르와 홍콩을 비롯, 타이베이와 서울에 주재사무소를 두었고 중국 복건성 복주시에선 오키나와·복건 우호회관을 건설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팔라렘푸르와 마닐라에 위촉주재원을 두었다. 다시 새해에는 방콕 자카르타·하노이에 위촉주재원을 둘 계획이어서 아시아지역에 배치한 오키나와縣의 거점은 1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오키나와는 14-16세기에 중국, 동남아와 일본을 연결하는 교류거점이 되어 번영을 누렸는데 그 "류큐(琉球)의 대교역시대(大交易時代)"를 되살리자는 것이 오토지사의 미래비전이라는 것이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전후의 '기지의존형', 오늘의 '국고의존형'(북극 시점에서 재정 의존도 23.4%, 1992년 의존도 29.8%로 높아졌음)에서 앞으로 자립형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탈기지, 탈재정의존'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산업창조계획의 기본이념은 '복지의 섬'이다. 첫째, 장수의 섬 오키나와의 지혜를 약초 및 제약원료의 산지로 육성하기 위해 약초류 성분분석기구 정비, 약용식물 생산유통 등 조사, 약초재배 실증전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따뜻한 날씨와 천혜의 자연

을 이용하여 '장수촌'을 만들자는 구상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무농약 야채,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고령화해가는 일본 전국의 고령인구 1천 8백만인에게 접근한다는 것이다. 둘째, 고도의 정보관련 산업이며 셋째, 관광개발을 위해 아쿠아폴리스를 나하신타항 머리에 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새 오키나와 창조'의 설계를 위해 일본 정부가 올해 배정한 예산은 총 5천억엔으로 여기에는 자유무역지역 확충에 관한 조사비, 후텐마 미군기지 터를 이용하기 위한 조사비 등 새 오키나와 진흥의 경비가 포함된 것이 특징인데 오타 지사는 이번 예산을 두고 '새 오키나와를 창조하는 원년의 예산'이라고 논평했다. 제주와 함께 동아시아 관광의 고리가 될 오키나와가 21세기를 향해 이제는 구체적 행동 계획까지 마련하고 있는 '새 오키나와 창조'설계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주도의 국제화 비전과 전략

최근 제주도도 그동안 학계의 의견들과 연구보고서들¹²⁾을 적극

12) 그동안 제주의 비전과 세계화전략과 관련하여 제시된 각종 연구보고서 중 대표적인 것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 제주국제협의회 총서: 1. 전환기의 제주(1991)
2. 평화와 번영의 제주(1992)
3. 개방화시대의 제주경제(1993)
4. 제주의 인간과 환경(1993)
- 문정인외, 『제주교육의 세계화 방안』(제주도교육청 1995)
-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연구자 : 신행철외), 『환태평양시대 제주도의 세계화전략: 기본구상』(제주도 1995. 12)
- 세계화추진제주협의회·제주국제협의회, 『제주도 승격 50주년 기념 「제주의 세계화」 학술대회』 자료집(1996. 8. 2-3.)
- 제주국제협의회·제주대 관광산업연구소, 『21세기 관광산업과 제주관광의 미래 심포지움』 자료집(1996. 11. 22-23)
- KBS 제주방송총국·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연구자 : 김항원의), 『제주

반영하면서 '도정 주요시책 보고회' 형식으로 『21세기 제주비전: 새로운 천년, 2000년대를 향하여』라는 구상과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¹³⁾ 이에 의하면, 21세기 제주비전은 「자존·경쟁·번영을 통하여 지역에너지를 결집시킨 질높은 공동체 사회 구현」하여 「동북아 문명권의 중심축」으로 「도약」, 「위대한 제주시대 개막」을 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서,

- 경제: 20억 동북아 인구를 시장으로 하는 경제구조정책
- 사회: 100만 세계 제주인 공동체 형성
- 문화: 제주문화의 정체성 정립 및 부가가치 창출
- 복지: 평균적 삶을 보장하는 '모두를 위한 사회'
- 환경: 자연과 인간중심의 제주 환경원형 복원

등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동 보고서는 앞으로의 계획이라기 보다는 '도정 주요시책 보고회'라는 형식 그대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보고일 뿐이다. 따라서 비전제시에 비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전략적 과제선정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앞서 오키나와의 야심찬 「국제도시형성 구상」을 보았듯이, 제주도의 국제화·세계화 비전과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때이다.

1) 태평양 시대,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의 위상학

인의 의식과 제주정신 정립』(1996. 12)

-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제주발전연구원, 『아시아 도서관 협력 : 관광과 문화 교류』 국제심포지움 자료집(1997. 7. 25)
- 제주언론 5사 공동캠페인 기획협의회·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제주도 민의 관광의식 조사연구』 세미나 자료집(1997. 7. 28)

13) 제주도, 『21세기 제주비전, 새로운 천년 2000년대를 향하여』 도정 주요시책 보고회 자료(1997)

태평양의 세기가 열리고 있다. 태평양이란 말뜻 그대로 「큰 평화의 바다」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¹⁴⁾ 평화는 우리 제주도가 국제도시화로 가기 위한 기초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21C적 제주의 국제화의 모색은 ‘평화의 섬’을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위해 우리는 좀 더 세밀한 관찰을 요한다. 사무엘 헌팅톤 교수에 의하면, 아시아에는 하나가 아닌 ‘빛’과 ‘그림자’라는 두 개의 아시아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빛으로서 아시아는 경제적인 아시아로서, 세계의 이목이 태평양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림자로서 아시아는 다음 세기에 아시아를 혼란에 빠뜨릴 정치적 불안정, 국제적 분쟁의 씨앗들로서, 그것들은 냉전종식의 부산물이며 경제발전의 산물일 수 있다. 그러한 분쟁의 씨앗이란 예컨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일·러, 일·중, 중·러 등의 영토분쟁과 국경분쟁, 소수민족들의 분리주의 및 민족분쟁, 그리고 종교분쟁이다. 그리고 서방과 유럽의 추세와는 반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군비증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가장 큰 잠재적 갈등요소의 하나는 이 지역을 둘러싼 기존 세력들 간의 패권싸움으로, 벌써부터 신냉전을 떠올리게 하는 새로운 신경전이 마·일과 중·러 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의 한쪽에선 화해와 협력이 무르익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의 한편에선 새로운 대결과 분쟁의 씨앗이 커져가고 있다. 지난 시기의 발상과 의식에 안주하게 된다면 제주도는 그냥 강요된 전략적 요충지로 남을 뿐이다. 태평양 시대에 제주도는 21세기적 해양일류한국의 발전을 이끌어갈 첨병으로, 세계가 안고있는 대결과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자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도의 위

14) 김학준, 「오늘날의 국제정세와 아시아 - 태평양의 장래」, 『아시아 도서간 협력: 관광과 문화교류』, 섬관광정책포럼 창설 기념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 제주발전연구원, 1997. 7. 25), p. 3

상학은 바로 그러한 점들이 고려되는 진취적 구상이어야 한다.

이미 그 물꼬는 트인 것도 사실이다. 지난 '91년 한·소 정상회담은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고양시켜 주었다. 제주만이 안고 있는 역사성, 자연조건, 지리적 위치 등은 국제평화를 가져다 줄 장소로 부각되었다. 특히 이 정상회담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탈냉전의 상징성을 갖게 됨으로써 제주가 단순한 국제관광지역에서 '평화의 섬'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주지하듯이,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대통령이 제주방문 이후 제주를 찾는 사회주의 국가의 원수급 인사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지난해에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바 있고, 여기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이 제의된 사실도 주목될 만한 일이다.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우리는 제주도가 아시아·태평양의 제네바나 비엔나가 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평화센터로서 중심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제주도는 동북아 국가들간의 평화·안보·경제·기타의 협력을 위한 국제회의의 개최나 협력체 본부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는 전략적 방안으로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한 연수원과 연구소의 설립, 국제 해양분쟁 해결센터의 설립 등을 강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지작업과 아울러 각종 정상회담 및 사무국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탈냉전 시대에 '평화의 섬' 제주도는 통일과 민족문제를 다루는 장소로도 최적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남북회담 장소로서의 판문점과 서울 그리고 평양은 장소 자체가 회담대표들로 하여금 화해 노력보다는 '제로-섬 게임'에 임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평화의 섬'인 제주는 남북한 모두에게 부담없는 대화의 장소를 마련해 줄 것이며,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북한 정상이 만나 민족의 장래를 논의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의 섬' 구상이 실천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제주도가 먼저 비군사화, 평화지대화가 모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각종 평화회의를 가능하게 하는 쉼션센터를 비롯한 편의시

설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하에 발주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건립추진은 그 의미가 크다. 그리고 셋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주사회 자체가 통합과 평화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역사와의 화해, 그리고 지역간, 계층간, 단체 조직간의 화합과 의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도서 시대, ‘섬들간 네트워크’의 중심지로서 제주의 위상학

대륙 문명시대에 섬들은 역사의 변두리에 밀려나 있었다. 문명의 중심과 해양으로 차단된 고립의 생활터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양 문명시대가 되면서 섬들은 먼거리에서도 이웃처럼 서로 접촉할 수 있는 문명접촉의 중심부로 되었고, 그 결과로 새로운 문명발전의 중심지로 나서게 되었다. 특히 21세기는 대륙중심의 인류문명이 해양중심의 문명으로 옮겨가는 시대가 될 것이며, 또한 오늘의 국가중심의 세계체제가 탈국가적인 시민중심시대로 바뀌어가는 시대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섬들의 지위가 인류문명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고 섬들간의 초국가적 협력이 중요해질 것이다.¹⁵⁾

‘강인과 진취’, ‘폐쇄와 소외’라는 섬사람의 보편적 정서, 관광진흥과 아이덴티티 확립을 제1의 지역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책목표의 동질성, 섬들이 일반적으로 외부인에게 주는 신비와 매력 등, 이러한 섬들이 갖는 공통성이 특히 도서시대를 맞아 협력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¹⁶⁾ 지난 7월 23-25일에 제주도가 주도가 되어 발리주, 해남성, 오키나와현간의 다국적 지방정부간 공동협의체

15) 이상우, 『海洋時代 섬들간의 協力』, 『섬관광정책포럼 창설』(제주도 1997. 7), pp. 76-80

16) 신구범, 『고립에서 연대로』, 『섬관광정책 포럼 창설』, 기조연설, p. 21

로서 창설된 섬관광정책 포럼은 도서시대, '섬들간 네트워크' 중심지로서의 제주의 위상학을 실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 이들 4개지역 지사·성장들은 포럼행사를 매년 순연 개최하는 것을 정례화하는 한편 포럼본부를 제주에 둔다는 데 합의하였다. 또 교류범위도 다른 섬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관광진흥 분야외에도 경제 문화 교육 등 타분야로 확대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공동이익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같은 포럼창설을 계기로하여 상호보완관계와 다양성을 인식하며 우의를 다짐과 동시에 이제 고립에서 연대로, 한계에서 무궁으로 위대한 섬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처럼 포럼은 그것이 기본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참여지역 간의 관광진흥 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도서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도서간의 상호협력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세계 섬문화축제'는 매우 중요한 기획이라 생각한다. 「섬, 늘 푸른 미래를 위하여」라는 주제하에 내년 7-8월 중에 세계 섬들의 찬치인 섬문화축제가 제주에서 열린다. 세계 섬 문화축제는 우선적으로 국내최고의 관광지로서 제주도의 명성과 함께 제주 GRP의 40%를 점하며 지역경제의 주축산업인 관광산업이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해 IMAGE-UP을 위한 획기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면서 사양화되어 가는 광광지의 비전을 보여주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특히 섬과 섬간에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물어 독특한 섬 문화축제 중심 공간으로 제주도가 나섬으로서 고립과 단절의 문화에서 21세기적 연대와 번영의 문화로 탈바꿈하는 중심축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섬지역의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함으로써 21세기 세계 섬문화 교류 중심지로서 제주의 위상을 확보하게 해 줄것으로 기대된다. 섬관광정책포럼이 동북아지역 섬들의 연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번의 '섬'축제는 세계의 섬들을 연대의 고리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세계의 섬들은 고난의 고립의 시대를

마감하고 공영의 연대의 시대를 창출해 가게 될 것이며, 그 중심적인 역할을 제주도가 맡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도서관 교류협력을 범위를 넓여 나가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이러한 지방자치체의 국제협력기구의 본부를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도에 유치하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국제회의를 제주도에서 유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동북아해역 협력권 구축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협력을 학술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세계도서 연구 및 교류센터'의 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사회·문화·지리·생태 분야 등 도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또한 도서관 협력포럼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의·세미나·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다른 연구기관 및 개인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간행물을 발간하며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자문을 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해양 시대, '한국의 침병'으로서의 제주의 위상학

태평양의 세기란 평화의 세기인 동시에 해양시대의 전개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거니와, 이제 제주도는 그야말로 해양시대를 이끌어갈 침병으로, 21세기적 해양일류한국의 발전을 이끌어갈 침병으로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난 시기의 반도적 수동적 역할에서 벗어나, 해양시대의 침병으로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도서관 네트워크의 구축은 좁게는 제주도의 생존전략이고 발전전략이 되겠지만, 이를 바탕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제주도가 해양시대 일류 한국을 세계로 이끌어가고 세계를 한국으로 끌어오는 발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도서관 교류·협력을 통한 정지작업을 해 나가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제주도가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물류기지 및 국제적인 상품판매·전시 센터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상품의 유통에 소요되는 물류비는 상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항만시설의 확충 및 물류기지화는 국제화·세계화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일본과 대륙을 쉽게 연결하고 국제 운송비가 가장 저렴한 해운의 중심지로서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산업 중심국인 한국, 일본 및 중국의 상호 교역 대상품을 보관·전시하고 산업 정보를 전달하는 데 따른 거리상의 이점이 확보될 수 있는 중심적 위치에 있는 제주도는 그 지경학적 위치로 보아 동북아 경제권의 역내물류 체계화의 거점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¹⁷⁾ 한편 국제물류기지 및 대규모 상품 전시·판매 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관세 및 기타 무역 규제를 철폐하는 자유항 내지 자유항지역 또는 자유무역지대와 대규모 면세상품의 전시·판매장 및 국제 상품정보 센터의 설치가 요망된다. 특히 제주도를 환태평양권 내지 동북아 해역의 인적·물적 교류·협력 및 휴양·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해양과학기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첨단시설을 갖춘 무역항이 반드시 필요하며 여기에 자유항의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된다.

3. 앞으로의 과제 : 의식의 세계화

우리는 앞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제주 국제화·세계화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지적하였지만, 사실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어진다면, 그것들은 분명 제주인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17) 오용석, 「동북아시아의 물류체계화와 제주도의 국제물류기지화」, 제주상공회의소·제주국제협의회 편, 『개방화시대의 제주경제』 (한울 1993), pp. 148-167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의식의 세계화를 가져오는 계기도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폐쇄와 소외가 아니라 강인과 진취를 바탕으로한 세계에 대한 도전의식과 개방성, 국제관광지에 걸맞는 시민정신을 터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의식의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을 심하게 차별하는 나라라고 지적하고 있다.¹⁸⁾ 과거에 우리의 사대주의적인 자세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벽을 두고 있으며 서구의 백인을 제외하고는 열등하게 보아 차별하는 경향조차 있다.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을 금기시하는 데서 나타나듯이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야 할 형제라는 인식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겠다.¹⁹⁾

다른 한편 외국의 상품이나 유행, 예술과 문화 등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단순히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전통적인 문물을 무시하고 선진국의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관행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는 우리의 미풍양속과 건전한 가치관조차도 전근대적인 것으로 무시하고 외국의 문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기비하적인 문화의식에 빠져 우리의 자주적인 역사의식과 긍지마저도 잃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²⁰⁾

18)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94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지난 1991년 이후 계속 떨어져 현재는 주요 41개 국가들 가운데 중하위권인 24위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은 국제화와 금융분야에서 각각 39위로 가장 낙후된 상태이고 과학기술부문은 18위, 인적 자원부문은 20위를 기록하였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을 심하게 차별하는 나라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일보』(1994. 9. 7) ; 김신복, 『세계화와 교육 및 의식의 개혁』, 정진영편, 앞의책, 199쪽에서 재인용.

19) 김신복, 위의 글, p. 204

20) 김신복, 위의 글, 같은쪽

이러한 한국인의 의식은 우리 제주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오히려 우리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육지외지인에 대한 심리적 벽도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도서권, 반도권이란 지정학적 숙명주의가 제주도민들을 폐쇄와 고립, 기회주의적 사대와 종속심리의 희생물로 만들어 왔다.²¹⁾

이제 우리의 대상은 도시, 육지가 아니라 세계인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정신에 걸맞게 보다 개방적이고 진취적이며 문화적 관용과 보편적 세계관을 향유할 수 있는 의식의 전향적 변모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 국제화·세계화 전략의 성패는 이제 우리 도민들의 의식과 의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의식을 세계화시킨다는 것은 곧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다. 세계시민의 이상형은 다음의 세가지 자질을 요구한다.²²⁾

첫째로 균형있는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류공통의 보편적 가치와 지역공동체의 정신적 유산을 균형있게 수용함을 의미한다. 세계시민은 하나의 가치척도를 절대의 것으로 고집하지 않으며 다원주의와 관용의 정신을 내면화한다. 열린 마음의 원동력은 역설적으로 자기정체성의 확인과 그것에 대한 긍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로 지구촌사회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인식의 수준을 심화하는 것이다. 세계시민은 우리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문제 - 전쟁과 평화, 환경과 자원, 인권과 복지 등 - 를 체계적이며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현실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세계시민은 본질적으로 지성적이다.

셋째로 경쟁력의 제고이다. 세계화가 전제로하는 상호공존과 준칙은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논리강요를 배격하나 공정한 경재를 인정하고 권장한다. 따라서 무한대의 경쟁질서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21) 문정인의, 『제주교육의 세계화 방안』, 앞의 책, p. 41

22)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한태평양시대 제주도의 세계화전략』, 앞의 책, p. 122

능력배양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기능인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Ⅲ. 세계화의 주체로서 제주인의 의식변화

그러면 제주인의 세계화에 대한 수용태도와 세계시민의식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 의식의 세계화의 가능성은 없는가? 우선 이와 관련하여 문정인 교수의 지적은 경청할만 하다. 그에 의하면 “역사적 궤적을 조망할 때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상”은 “도서권, 반도권, 해양권”의 세가지로 분류되며 이러한 지정학적 위상에 따라서 도민들의 심리적인 경향은 물론 사회구조와 생존전략이 변해왔다는 것이다<표 1>.

<표 1> 제주의 지정학적 위상 : 비교론적 시각

시 대 구 분		심리적 경향	정치구조	경제구조	생존전략
도서권	탐라국시대	고립, 폐쇄 배타주의	부족국가	자급자족적 경제체제	내부지향적
반도권	본토에의 병합이후 현재까지	반도에의 종속 경향 / 국지적 사대주의	중앙집권체제 하의 행정단위	반도권 종속경제	현상유지 / 탈종속
해양권	80년대 초기태동: 미래에의 제주위상	진취, 개방성/ 외래문물과의 조화성	지방분권화 하의 정치적 자율성	경제구조의 세계화, 반도경제권으 로부터의 탈피	세계화 다변화 다양화

자료 : 문정인외, 『제주교육의 세계화 방안』, 앞의 책, p. 37

문정인 교수에 의하면, 바야흐로 해양시대의 도래와 함께 제주인의 세계화의식은 밝아질 전망이다. 물론 그의 주장도 현재적 의식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망적이고 당위적인 의식일 것이다. 이러한 문 교수의 주장처럼 하루빨리 지난시절의 고립, 폐쇄, 배타,

종속, 사대에서 벗어나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세계시민의식이 제주인들에 자리잡기를 고대하면서, 제주인의 세계화 의식의 현주소를 주로 기존의 조사연구 자료들을 중심으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생존과 발전에 대한 「주인」의식의 변화

제주의 국제화, 제주의 세계화를 이끌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최근의 조사를 보기전에 대등한 비교의 기준은 되지 않겠지만 참고적으로 趙文富 등에 의해 1979년에 이루어진 의식조사 연구결과 중에 한 가지를 지적해 두기로 하자.²³⁾

즉 제주지역 개발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정부당국의 지도와 주민의 협동적 노력, 즉 주민들과 정부간의 협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중이 전 응답자의 78.8%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주민들의 협동(22.35%)보다도 정부당국(9.12%)이나 정부의 지도(55.59%)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주민의 자립심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한다는 비율은 6.86%에 불과하였다.²⁴⁾ 그야말로 반도권 시대의 의존적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결과를 보자.

최근의 조사는 도민 전체를 표본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문정인 등에 의해 도내 초·중·고교 180개교를 대상으로하여 실시된 제주교육의 세계화 실태 및 도내 교사·학생·학부모의 세계화에 대한 인지도와 요구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가 있다.²⁵⁾ 이 중 '제주지역의 국제

23) 제주대학 통일안보연구소(조문부외), 『제주도민의 의식구조 조사연구』(제주도, 1979. 12. 8). 이 연구는 70년대 이후 급격히 이루어진 제주도의 개발과 도시화에 따른 제주도민의 의식을 1,020명을 표본으로하여 사회·문화, 지역개발, 일반행정, 국가, 통일안보 등의 분야로 세분화하여 실시된 것으로, 도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조사연구인 것 같다.

24) 조문부외, 위 글, p. 90

화는 누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분석한 것에 의하면, 유효표본 636명 중 342명인 49.4%가 세계화의 주도세력은 도민전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 다음이 중앙정부(23.7%)와 지방정부(15.0%)로 나타났다. 다음은 언론(7.4%), 지방대학(4.6%) 등의 순서였다.²⁶⁾

<표 2>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대체로 반대	매우 반대	계(N)	평균 점수
자유무역항	38.6	41.0	15.0	5.4	100.0(682)	3.13
평화의 섬	67.9	28.4	3.3	0.4	100.0(683)	3.64
국제회의 산업	67.1	29.2	3.1	0.6	100.0(687)	3.63
국내휴양지	56.7	37.5	5.1	0.7	100.0(682)	3.50
국제휴양지	63.5	28.3	7.0	1.2	100.0(684)	3.54
해양산업	50.0	42.5	6.9	0.6	100.0(682)	3.42
농업 등 1차산업 중심지	26.7	43.0	27.8	2.5	100.0(677)	2.94
동북아시아 중심 물류센타	37.0	41.7	18.3	3.0	100.0(678)	3.13
국제(특히 동북아)금융중심지	33.2	38.8	23.3	4.7	100.0(680)	3.01
정보 등 첨단지식산업	44.2	38.4	15.1	2.3	100.0(677)	3.24
현상태로가 좋다	7.3	20.9	50.3	21.5	100.0(671)	2.14

주) 평균점수는 ‘매우 찬성한다’ 4점, ‘대체로 찬성한다’ 2점, ‘대체로 반대한다’

3점, ‘매우 반대한다’ 1점을 주어 계산된 것이며, 항목별 점수의 범위는 1-4점이다.

*자료 : KBS 제주방송국-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 정립』, p. 105

아직도 중앙정부에 대한 기대가 결코 약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79년의 결과와 비교한다면 매우 달라진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문정인 등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래의 제주도의 생

25) 문정인의, 『제주교육의 세계화 방안』(제주도교육청 1995), pp. 66-173

26) 문정인의, 위글, p. 145

존과 발전을 위해서 세계화 국제화되어야 한다는 의식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세계화와 내부지향적 발전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73.8%로 절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세계화보다 내부지향이 13.8%, 절대적으로 세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0.8%였다.²⁷⁾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21세기 제주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실시된 김항원 등의 조사결과에서 증명된다(<표 2>참조).

이러한 결과로 보아 제주인들은 대체로 앞으로 제주도가 세계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고, 그 세계화의 주도세력도 제주도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컨벤션 센터 도민주 공모에서 그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2. 패쇄성과 배타적 의식의 문제

그러나 세계화의 주체가 제주도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실제 제주도민이 세계화를 수용할 태세와 세계시민의식을 갖추고 있는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세계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인 방향을 주장한 것이지만 세계화의 수용태세와 의식은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에 따라 새로운 의식이 바로 싹드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의식의 변화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의식은 고립과 폐쇄, 배타적이고 의존적인 의식, 그리고 열등의식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식들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보기전에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왜 제주인들에게 이러한 의식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진단이 서야 그것의 극복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27) 문정인의, 위 글, p. 143

우선,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할 것 같다. 즉,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중국대륙·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삼각형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 의하여 둘러싸인 동북아 해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역사적으로도 끊어없이 외세의 침입이나 간섭을 받아왔다.²⁸⁾ 외적의 침입과 외세의 간섭으로 忍苦와 受難으로 점철된 제주의 역사는 일찍이 高·梁·夫 三族의 氏族中心의 사회로부터 시작되었고, 고려시대에는 북방에서 오는 몽고군의 침략을 막고, 반격의 태세를 갖추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고려시대 이후 일본 왜구의 침략도 끊어지지 않았다.²⁹⁾ 그리고 일제시대 제국침략기에는 75,000명이나 되는 일본 관동군의 병참기지가 되어야 했고, 일제패망과 함께 상륙한 미군에 의해 제주 요새화가 기도되기도 했던 바 있다.³⁰⁾ 해방이후에도 제주는 세계 냉전 체제로의 재편과 남북한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4·3사건'을 겪음으로써 인구 20만 중 5만명이나 희생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주도는 고려로 편입된 이래 최근까지만 해도 항상 변방지로 남아있어야 했다.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온갖 침략을 겪어야 했지만, 대내적으로는 항상 중앙의 관심에서는 멀리있는 변방이었고 수탈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제주는 100년이라는 세월동안 중앙의 관심밖에서 원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 조선시대에는 겨우 중앙에서 쫓겨난 관리들의 유배지일 뿐이었고, 말을 길러 밭치는 방목장일 뿐이었다. 왜구의 침략, 관의 수

28) 高性俊, “自衛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耽羅精神探究 세미나 자료집』 (제주대학 탐라연구소 1979. 10. 19), pp. 121-144

29) 倭賊의 침입은 고려시대에 5회,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太宗 때에 5회, 명종 때에 4회나 계속적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뒤 각 王代에도 그치지 아니하고 近 300년간 계속되었다. 고성준, 위글, p. 130

30) 고성준, “통일시대의 전개와 제주도”, 『東아시아 研究論叢』 제 6집(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5), p. 68

탈, 자연재해 등으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고, 삶의 기회를 찾아 떠나는 제주인에게 200여년 동안 출륙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하였었다. 변방으로서의 제주의 위상은 해방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4·3사건'과 '한국전쟁'은 제주인의 정체성 마저도 흔들리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제주인들로 하여금 폐쇄와 배타의식을 생성하게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되어야 할 것은 전통적 제주인들이 폐쇄와 배타의식만을 가져왔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³¹⁾ 다만 여기서는 '의

- 31) 제주도의 자연은 그지없이 아름답지마는 아름다운 자연과는 대척적으로 지난날 제주도에 사람이 살아가기는 참 어려웠다. 땅은 메마르고 바람은 모질고 물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논은 드물고 지천으로 깔린 돌맹이는 너무 구르고 자칫하면 물난리를 겪어야 했고 - 이런 모질기만 한 지리적 여건 위에도다 거둬거둬 고난의 역사가 덮쳐 늘었다. 이런 어려움을 우리 제주도민들은 어떻게 대처하며 억척스레 이 섬을 지켜 온 것일까? 사람 삶이란 볼 수 없었던 삶을 어떻게 그 숭한 세월 참고 견디며 꿰뚫어 왔을까? 제주도민을 제주도민답게 있게 해온 그 불가사의에 가까운 저력의 정체는 과연 어떤 것일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던져진 육중한 무게를 지나는 숙제다.

이 제주인의 정체성, 제주의 정신문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학술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보여준 시도가 1979년 10월에 제주대 탐라연구소에 의해 개최되었던 『耽羅精神探究 세미나』인 것 같다. 여기서는 각기 전공이 다른 7명의 학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탐라정신의 실체를 찾아 나서고 있다. (제주대 탐라연구소, 『耽羅精神探究 세미나』 주제발표요지(1979. 10. 19)를 볼 것. 여기서 발표한 7명의 발표자와 발표주제는, 金宗業, “歷史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金仁濟, “倫理的 價値觀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玄容駿, “民俗을 통해서 본 耽羅精神”; 姜景濬, “風土의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金榮敦, “民謠를 통해서 본 耽羅精神”; 高性俊, “自衛의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梁重海, “文化的 側面에서 본 耽羅精神”). 이 7개 분야에서 지적된 탐라정신의 공통인자들만 간추려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自彊(自立·自主·自助·自足·自慰), 不敗(不屈·意志·鬪志·能動的), 節儉(節約·儉素·節制·質朴), 強韌(堅忍·堅韌·忍耐), 勤勉, 實利(實用·功利·實行), 抗拒, 協扶, 선비정신(崇祖·崇仁·崇禮), 劣等意識, 進取的, 自衛, 開拓, 和睦, 排他, 感傷, 靜觀

우리는 여기서 이상의 '탐라정신'들이 어떠한 근거에서 찾아진 것인지 그들의 연구를 자세히 추적할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은 탐라의 정신문화는 평화지향적이라는 점이

식의 세계화'라는 각도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들 의식만이 부각될 뿐이다. 그러면 기존의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의식의 현주소를 보기로 하자.

이와 관련해서도 우선 1979년의 조문부 등의 조사결과를 잠시 인용하기로 한다. 이를 태면 하나의 예는 관광개발에 있어 외지자본의 투자에 대한 의식을 들 수 있다. 지역개발의 주요 산업으로 관광개발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지만, 관광개발에 따른 투자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민간자본 유치의 일환으로 외부 재벌들이 토지를 취매하는 데 대해서 『관광개발을 늦추거나 안돼도 좋으니 육지부 재벌들에게는 땅을 팔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38.7%)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³²⁾ 물론 이러한 가지 문항을 가지고 당시의 제주도민의 의식이 외지인에 대해 배타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사실은 문항자체도 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적절치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제주인들은

다. 탐라정신의 적극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不敗, 強韌, 抗拒, 排他 등도 평화를 깨려는 의도에서라기 보다는 평화를 지키기위한 자위의 수단으로 발달한 정신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평화의 정신은 의식의 세계화로 가는 가장 기초적인 의식에 해당된다고 확신한다. 탐라정신이 평화지향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적 전통으로 '三無精神'을 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여기서 '三無'란 盜無, 乞無, 大門無이다. 도둑없고, 거지없고, 대문 없다는 三無精神은 東西와 古今을 가릴 것 없이 온 인류가 바라는 바 궁극적인 理想일 것이다. 예나 이제나 사람이 사는 사회라면 도둑과 거지는 전혀 불필요한 것이며 大門 역시 이를 없애서 지낼 수 있을수록 좋은 일이다((양중해·현용준외, 『濟州道民의 三無精神』(제주도, 1983), 14-15쪽을 참조)). 그런데 삼무정신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4·3'은 제주인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계기로 작용했다. 제주도 사람들 중에 4·3의 용어리에서 벗어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어느 누구든 좌든 우든 4·3이라고하는 비극적 사건에 모두 희생자들인 것이다. 정신적 물질적 희생자들이다. 최근에는 이 4·3의 치유방안을 놓고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또 좌우로 갈라졌다가, 이제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가치 속에서 제주사회는 상당히 분열되어 가고 있다. 역사와의 화해, 그리고 지역간, 계층간, 단체 조직간의 화합과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32) 조문부의, 위 글, p. 108 참고로 「토지를 파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은 27.3%였다.

외지인에 대하여 다소 거리감을 가지고 대하여 경계하는 경향이 있었다. 농촌에서는 외지인에게 집을 잘 빌려주지 않으려 하거나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등 배타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라는 전통적 속담에 제주도민이 주눅들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³³⁾ 최근의 연구결과에서도 이러한 세계화에 부정적인 의식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문정인 등의 연구에서 「제주사회가 세계화되는데 가장 심각한 저해요인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도민 의식의 배타성(39.1%)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무능력(21.3%), 세계화 교류의 취약도(15.5%), 지리적으로 고립(11.0%), 중앙정부의 간섭(11.0%), 도민들의 불친절(6.0%) 순이었다.³⁴⁾

다음으로 김항원 등의 연구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고방식은 첫째 순위그룹에서 이기주의(35.3%), 파벌, 학연, 지역주의(19.1%)가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둘째로 중요한 순위그룹에서는 적당주의(23.7%), 파벌, 학연, 지역주의(19.1%), 불신(14.7%), 폐쇄주의, 배타주의(13.9%), 이기주의(12.1%)의 순으로 거론되고 있다.³⁵⁾ 특히 여기서 배타심의 경우, 외지 사람에게 경계심을 갖는다는 응답자는 1/3 수준에 불과하지만 외지인에 대하여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은 45.2%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제주 사람들은 육지 사람

33) 김항원, 『제주인의 의식』, 『제주리뷰』 제 3호 (제주대 지역사회발전연구소 1977), p. 69 또 김혜숙의 연구에서도 제주인의 의식은 개인의식(독립성·자주성)이 강하지만,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기적이고 타인이나 외부집단에 대한 배타적인 폐쇄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혜숙, 『가족의 성격을 통해서 본 제주인의 의식구조』, 『제주인의 의식구조』 제 7회 지역학술 세미나 자료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제주지회 1986. 11. 22), p. 69

34) 문정인, 위 글, p. 155

35) 김항원의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 정립』(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총국·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1996), p. 79 이 연구는 가장 최근에 도민전체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실시한 가장 포괄적인 도민 의식조사 연구라 하겠다. 여기서 인용한 질문에 응답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고방식을 첫째로 중요한 것과 둘째로 중요한 것 등으로 중요도 별로 답하도록 한 것이다.

들에 대해 배타적이라고 평가하는 응답자는 64.8%에 달하고 있다.³⁶⁾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배타심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타인을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배타심의 정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³⁷⁾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과거에 고립된 사회에서 제주인들이 가졌던 외지인에 대한 배타심은 많이 약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한 정도의 배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³⁸⁾

한편, 제주사회에서 타파되어야 할 폐습들로 허례허식, 사치풍조, 불친절, 교통질서 안지키는 것 등의 순서로 지적되고 있다.³⁹⁾ 또 허향진 등에 의해 이루어진 「제주도민의 관광의식 조사연구」에서도 고쳐야 할 폐습에 대한 인식으로 관광객에게 불친절한 행위(59.6%), 관광객을 속이고 위협하는 일(33.6%), 관광객을 호객, 유인 안내하는 것(30.8%), 자원,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6.8%), 교통, 관광질서를 잘 안지키는 것(22.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⁰⁾

4. 세계시민의식의 형성 가능성

과거에 비한다면 김항원 교수가 지적했듯, 외지인에 대한 배타심은 많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과거에 가졌던 열등의식은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3.6%). 또한 대다수 응답자들이 제주인의 능력이 육지사람들에게 떨어지지 않으며, 육지사람들과 일을 할 때 당당한 자세를 취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가

36) 설문조사 결과는, 김항원의, 같은 글, pp. 429-431 참조.

37) 김항원, 「제주인의 의식」, 『제주리뷰』 제 3호 (제주대 지역사회발전연구소, 1997), p. 73

38) 김항원, 「제주인의 의식」, 같은 글, p. 76

39) 김항원외,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 정립」, 위 글, p. 78

40) 허향진외, 『제주도민의 관광의식 조사연구』(제주언론 5사 공동캠페인 기획협의회 ·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1997. 7), p. 43

졌던 열등의식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보이며 제주인의 부정적인 의식으로 열등의식을 드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은 제주인의 상당히 높은 정체성을 보면 분명해 진다.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제주도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느끼고 있으며(84.9%), 육지에 가서도 제주도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고 있다(83.9%). 또한 응답자의 60%정도는 자녀들도 제주도에 살기를 바라고 있으며, 2/3정도는 본인들도 제주도에 살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¹⁾ 또 제주문화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도, 제주도 문화에 대한 호감(80.9%), 제주도 문화에 대한 긍지(76.3%), 제주도 사람들이 해놓은 일에 대한 자부심(62.3%) 등으로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⁴²⁾

이러한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다. 김혜숙 교수의 주장을 뒤집어 표현하면, 배타적인 폐쇄성은 상황에 따라서는 독립성이 강한 것이고 자주성이 강하다는 의식과 이웃하는 것이다.⁴³⁾ 그리고 개인의 의식이 발달했다는 것은 실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이 된다. 김향원의 조사연구에서도 전통적인 탐라정신은 아직도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삼무정신과 조냥정신, 강인과 검소, 자립심과 곤난극복 의지 및 독립심 등에 대한 제주도 주민들의 선호도(89%이상)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수눌음으로 대표되는 공동체 의식과 협동의식도 아직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참여 의식과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도, 정책결정 참여의지도 타지방에 비해 월등하게 높으며, 평등의식도 높다.⁴⁴⁾

41) 김향원, 「제주인의 의식」, 위 글, p. 76 자세한 설문결과는, 김향원의,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 정립」 참조.

42) 김향원,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도의 미래상을 위한 오늘의 과제』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제주도연구회 공동주최 전국학술대회 자료, 1990.11), p. 65 그리고 동저자,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을 참조.

43) 김혜숙, 앞의 글, p. 69

44) 김향원,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및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참조.

이처럼 정체성이 높고 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세계로 문을 활짝 열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신감의 표현이며, 합리적이면서 협동적인 태도, 참여의식과 평등의식 등은 세계시민적 자질의 기초가 되는 의식들이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앞으로 요구되는 사고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주인들은 첫째로 중요한 것들로 진취적 사고(32.5%), 개방적 사고(19.7%), 관용적 태도(15.0%), 친절한 태도(12.0%), 합리주의(11.6%)의 순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로 지적된 순위그룹에서는 친절한 태도(26.9%), 합리주의(19.7%), 관용적 태도(16.6%), 개방적 사고(14.0%), 진취적 사고(10.0%)의 순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서 첫째와 둘째를 묶어 하나의 평균점수로 나타내보면 진취적 사고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개방적 사고, 친절한 태도, 관용적 태도, 합리주의의 순으로 선택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분명 폐쇄주의적 사고, 이기주의, 지역주의, 배타주의 등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⁴⁵⁾

IV. 결 론

다가오는 21C는 태평양의 시대이고 해양시대이고 도서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태평양의 시대란 말뜻 그대로 「큰 평화의 바다」의 시대이다. 그리고 해양문명의 시대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그동안 고립되고 소외되어 왔던 섬들이 이제부터는 문명창조의 중심에 서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전까지 우리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군사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예전의 그러한 인식을 바꿔 제주도가 세계에 평화를 알리고 평화를 이끌어내는 섬으로 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국제화·세계화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에서 제주도는 도서시대의 중심축에 서도

45) 김항원의,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 정립』, 앞의 글, pp. 80-81

록 노력해야 한다. 섬들간 네트워크를 통한 고립에서 연대로 나아가며 해양문명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21세기의 세계화의 파고를 헤쳐나갈 제주의 생존전략이요 발전전략이라고 본다. 해양시대에 제주도는 더 이상 한반도의 최남단에 붙어있는 조그만 섬이 아니라 일류해양한국을 이끌어갈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을 밖으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세계를 제주로 끌어오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역할을 제주가 맡아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태평양의 시대, 해양문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섬의 정신, 탐라의 정신이 새롭게 표출되려 하고 있다. 지난 탐라국시대와 반도권 시대에 강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고립과 폐쇄, 배타와 종속의 의식이 무의식의 저편으로 잠재우고 이제는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의식이 서서히 전면에 나서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그동안 제주발전 경험에 대한 제주인들의 자신감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제주인들은 과거의 살기 어려운 변방의 제주도에서 70년대 이후 관광산업과 감귤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살기 좋은 제주도로 만들어 왔다. 특히 국제관광 도시로서의 제주의 위상은 외국인과 세계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는 데 기여해왔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 이후 국가원수급 외국인들의 잦은 방문도 제주인의 자긍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제는 오히려 우리 제주도민들이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세계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섬관광정책포럼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건립추진에서 그러한 참여의식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섬관광정책포럼이 동북아지역 섬들의 연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번의 '98제주세계섬문화축제'는 세계의 섬들을 연대의 고리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섬'축제는 국제관광지로서의 제주를 세계에 알릴 뿐만 아니라, 해양시대에 제주가 한국일류해양국가로 이끌어가는 첨병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는 더욱 시민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수용하고,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동의를 구하

는 데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도민들의 의식을 한층더 세계화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폐쇄와 소외가 아니라 강인과 진취를 바탕으로한 세계에 대한 도전의식과 개방성,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는 세계시민정신을 터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 현실적으로 현재 제주도민의 의식 중에는 세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배타적인 측면이 남아있다. 특히 현대사에서 이러한 의식을 낳게한 것은 '43사건'이라고 본다. 제주도 사람들 중에 43사건의 용어리에서 벗어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어느 누구든 좌든 우든 43이라고하는 비극적 사건에 모두 희생자들인 것이다. 정신적 물질적 희생자들이다. 최근에는 이 43사건의 치유방안을 놓고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또 좌우로 갈라졌다가, 이제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가치 속에서 제주사회는 상당히 분열되어 가고 있다. 역사와의 화해, 그리고 지역간, 계층간, 단체조직간의 화합과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물론 의식의 변화라는 것이 일순간에 또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확연히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가야 할 것이다.⁴⁶⁾ 그것은 교육현장에서부터 사회단체, 언론매체, 지방정부와 의회, 그리고 제주도민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모두가 같이 제주의 생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발전을 모색하며, 이를 수용하려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려는 의식의 전환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46) 이에 대한 연구는 별도의 연구 주제로 접근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토론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고성준

- 1978 “자위적 측면에서 본 탐라정신”, 『탐라정신탐구 세미나 자료집』, 제주대학 탐라연구소(10. 19).
1995 “통일시대의 전개와 제주도”, 『東아시아 研究論叢』 제6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김항원

- 1990a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도의 미래상을 위한 오늘의 과제』,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제주도연구회 공동주최 전국학술대회 자료.
1990b,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제주인의 의식”, 『제주리뷰』 제3호, 제주대 지역사회발전연구소.

김항원 외

- 1996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 정립』, KBS 제주방송총국·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김혜숙

- 1986 “가족의 성격을 통해서 본 제주인의 의식구조”, 『제주인의 의식구조』 제7회 지역학술 세미나 자료,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제주지회(11.22).

문정인

- 1995 “세계화의 위협구조와 국가전략: 신중상주의의 가능성과 함께”, 『계간 사상』 봄호.

문정인 외

- 1995 『제주교육의 세계화 방안』, 제주도교육청.
세계화추진제주협의회·제주국제협의회
1996 『제주도 승격 50주년 기념 「제주의 세계화」 학술대회(8. 2-3). 양중해·현용준 외

- 1983 『濟州道民의 三無精神』, 제주도.
오키나와 광고과
1995. 11 『오키나와 투데이, '95오키나와의 개황』
이상우
1994 “세계화 시대 - 교육을 통한 창조적 대응”, 『교육개발』
3월호, 한국교육개발원.
이지훈
1997 “섬관광정책 포럼 주민 참여 아쉬워”, 『제주일보』(8. 10)
정진영 편
1995 『세계화 시대의 국가발전전략』, 세종연구소.
제주국제협의회
1991 『전환기의 제주』, 서울 : 한울.
1992 『평화와 번영의 제주』, 서울 : 신라출판사.
1993 『개방화시대의 제주경제』, 서울 : 한울.
1994 『제주의 인간과 환경』, 서울 : 한울.
제주국제협의회 · 제주대 관광산업연구소
1996 『21세기 관광산업과 제주관광의 미래 심포지움』(11. 22- 23).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연구자 : 신행철외)
1995 『한태평양시대 제주도의 세계화전략: 기본구상』, 제주도.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 제주발전연구원
1997 『아시아 도서간 협력: 관광과 문화 교류』 국제심포지움
자료집(7. 25).
제주대학 통일안보연구소(조문부외)
1978 『제주도민의 의식구조 조사연구』, 제주도(12. 8).
제주도
1997a 『섬 관광정책 포럼 창설』, 제주도.
1997b 『21세기 제주비전, 새로운 천년 2000년대를 향하여』 도정
주요시책 보고회 자료.
허향진 외
1997 『제주도민의 관광의식 조사연구』, 제주언론 5사 공동캠페인

기획협의회·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공동세미나
최종보고서.

The Host of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 The Consciousness Change of Chejuians

Ko, Sung-Joon

Dept. of National Ethics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globalization of consciousness has been studied on the premise that a survival or developing strategy of Cheju is the globalization of Chejuians(Cheju people) in the coming 21st Century. First of all, the 21st vision of Cheju can be established as the following three types with reference to the example of Okinawa: ① Pacific Era as the island of peace ② Insular Era as the host to link all world islands ③ Ocean Era as the advance guard point of Korea. But it is very important to implement a plan setting a detailed strategy beyond the step of planning. To do so, the will and the consciousness of Chejuians who carry out this vision must be considered. Even though the consciousness of Chejuians can not be changed easily during short-term period, all Chejuians have to think and make efforts to solve the current issues they have fac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clearly Chejuians have changed their own consciousness little by little as the host of globalization. First, about "Who will be the host of Cheju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Chejuians have a remarkable response against the 1979's survey results. Precisely, most of the Chejuians agreed to become the host to lead Cheju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Second, concerning the globalization, Chejuians must consider and overcome the following obstacles: isolation and closure, exclusiveness, dependance and inferiority. From the result of study, the exclusiveness against an alien has gradually disappeared

although they can not be satisfied with the current conditions. Third, it is not easy to realize the dependance and inferiority of Chejuians because they have a strong identity and self-esteem of local society. Futhermore, the community and cooperation consciousness shown from "Sunealoom"(a mutual labor club of local society), political participation and administrative decision, and the concern of local social problems are outstandingly appraised compared with other provinces of Korea. Having the highly appraised and self-esteem of the World, Chejuians can be the host of globalization since they are based on a cooperative attitude, positive participation and equalization.@